

광산구, 중기 특례보증 사업 “돈 가뭄 업체엔 단비”

코로나19 극복 55기업에 100억원대 무담보 대출...조기 소진 성과 92% '만족' 답변...대출한도 부족·정부지원 미흡 등은 개선 목소리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시행 3개월만에 한도를 조기 소진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대출 한도 확대, 일부 금리 이자 정부 지원, 수시 자금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유통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행 3개월만에 한도 금액이 조기 소진하는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 됐으나, 해당 기업을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대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광산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가운데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5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자금을 바탕으로 광산구 관내 중소기업 55곳이 은행권에서 무담보로 100억 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1개 기업당 1억 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광산구는 “지역경제를 이끄는 큰 두 축인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12곳과 기계·금형 등 가전제품 관련 기업 14곳이 총 대출금의 절반이 넘는 58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산단 별로는 평동·하남산단 업체 각각 18곳, 진곡산단 업체 6곳 등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사안은 특례보증 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광산구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였다. 25개 기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68%의 기업이 코로나19가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감염병 사태 이후 만족도 조사 기업 중 81%가 매출액 감소를 경험했고, 30% 이상 매출액 감소를 보인 기업도 34%에 달했다. 기업 95%는 대출 받은 자금을 임대료와 직원 급여 지급 등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광산구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92%에 달했다. 광산구 특례보증의 장점으로는 낮은 금리(50%), 까다롭지 않은 지원 자격(31.8%), 인하된 보증수수료율(13.6%) 등의 순으로 답했다.

보완 사항으로는 ‘지원금액 확대’, ‘금리 추가 인하’ 등을 꼽았다.



광주 광산구 주도로 지난 6월 8일 마련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광주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제도에 대해 대출한도 확대, 기업 필요시 상시 지원,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들의 이 같은 요구 배경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광산구 특례보증은 기술보증기금 100% 보증과 연 2-2.6%의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반면 정부 중소기업 대출은 보통 90-95% 보증에 연 3-4% 이자율이 적용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지원 광산구 ‘건강밥상조합’ 출범

광주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건강한 반찬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협동조합이 지난 5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이번 창립총회를 연 ‘늘행복 건강밥상 협동조합’은 광산구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종합 복지정책으로 출범했다.

광산구는 ‘늘행복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종합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제 육성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도 확보했다. 앞서 광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생활 실태를 전수 조사했는데 ‘반찬 제공’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는 응답이 나왔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0여 명이 참여해 이번 협동조합을 구성했으며, 손수 만든 반찬과 먹거리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돕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동조합이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함께 거뒀다는 평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건강밥상에 힘을 보탤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2020 대한민국 SNS 대상’ 광산구, 2년 연속 최우수상

광주 광산구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의 ‘제10회 2020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SNS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현황을 평가하는 대회로, 광산구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는 특히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연이여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광산구는 SNS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소셜지기단과 1인 크리에이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시민과 정책소통에 나선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일 1-2회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알린 ‘코로나19 시민소식지’, 공공 SNS 채널을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홍보처로 활용한 ‘홍보대행사 광산’이 주목을 끌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국악상설공연’ 재개

광주시는 “지난 6일부터 ‘광주 국악상설공연’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8월 23일부터는 대면 공연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5시 광주 공연마루에서 지정좌석제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좌석은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객석은 절반만 운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순조’

61만㎡ 부지 조성 마치고 건축 인허가 승인 진행 중

광주 광산구 하남·흑석·장덕동 일대 노후 주거지(61만㎡)를 개발하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2년 마무리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2013년 8월 착공해 지난해 2월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8월 기준 164건의 건축인허가를 거쳐 모아엘가 등 75건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는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

또 주민 조기정착 유도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산구에 40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복합시설(지하1층, 지상5층), 마을회관 2동(지상2-3층), 주차장 15곳, 생활체육시설(지하1층, 지상4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엔 시내버스 정류장에 안전유도 점자블록과 버스 도착 정보안내기(BIT)를 설치했으며, 우·오수관 정비와 도로 등 시설물 보완 공사도 추진하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주민들의 조기 정착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406억원의 예산을 지원, 주민복합시설(지하1층·지상5층), 마을회관 2동(지상2~3층), 주차장 15곳,

박인기 광주시 도시정비과장은 “거주환경을 적극 개선해 하남3지구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 삶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산부를 배려해주세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임인수)는 지난 6일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서구 운천역과 전동차 등에서 ‘임산부 배려 대중교통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취약계층 경제활동 도우미 ‘광주형 일거리 사업’ 시동

경제활동 취약계층에게 단기 계약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거리’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 사회혁신플랫폼, 퍼니브라운, 한전KDN 등 11개 기관·단체는 지난 6일 광주 재능기부센터에서 ‘광주형 일거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참여 기관들이 경력 단절자, 사회 초년생, 장애인 등 의지는 있지만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알선하는 것이다.

지역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민관 협업 기구로 2018년 출범한 광주 사회혁신플랫폼이 올해 실행 의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재능기부센터, 사회복지 시설, 마을 공동체 등이 거점 역할을 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재능 수요 기관과 시민들을 연결할 예정이다.

최현호 퍼니브라운 대표는 “단기 계약 형태의 일거리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요즘 상황에 꼭 필요한 경제 활동”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